

거세

Kastration

1. 어원 및 개념 정의

‘생식력을 빼앗다’라는 뜻의 라틴어 castrare에서 유래. 수컷의 경우는 고환을, 암컷은 난소를 제거함으로써 성호르몬의 분비를 단절시켜 생식불능이 되고 제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거나 퇴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인간의 경우 X선을 쬐거나 질병 등으로 성선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도 넓은 뜻의 거세에 해당한다. 남성의 경우 페니스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 역사적 배경

거세는 의학이나 생물학, 축산학에서 주로 성호르몬의 결핍으로 일어나는 생리적이고 병리적인 여러 가지 장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인간이나 동물에 행한다.

거세는 의학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미치는 질병이 생식선에 발생한다든지 약질의 유전형질이 뚜렷할 때 그 화근을 없애기 위해 실시한다. 동물에서는 질병의 치료뿐 아니라 그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거세를 행한다. 거세당한 동물은 온순해지고 관리하기가 쉬우며, 교미능력의 상실로 암수를 함께 사육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고기질도 연해진다. 말은 순화를 목적으로, 면양은 비육과 모질의 개선을, 돼지나 닭은 비육을 목적으로 고환을 제거하고, 개나 고양이는 발정기의 시끄러움을 피하고 잡종의 번식을 막기 위하여 난소를 적출한다. 거세방법으로는 외과적인 수술로 고환을 떼어내는 것 뿐 아니라 정계를 으깨버리거나, 실로 묶는 것, 또 생식선에 민감한 방사선을 일정량이상 쬐여 그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도 있다.

인간에게 치료의 목적이 아니면서 남성을 거세한 예가 있다. 옛날 중국이나 한국에서 죄인 등을 거세하여 내시로 만들어 궁녀들 틈에서 일하게 하였고, 서양에서는 가톨릭 성당에서 합창 단원이 항상 아름다운 목소리를 유지도록 하기 위해 미성년 시절 거세하여 카스트라토로 만드는 풍습이 근세 러시아까지 전해지고 있다. 카스트라토는 변성기 전의 소년을 거세하면 성인이 된 후에도 소프라노나 알토의 성역을 지니는 특성을 이용하여 만드는데, 음질이 소년이나 성인 그리고 여성에 비해 맑고 순수하며 또 음역도 훨씬 넓다. 그래서 거세는 16세기 이후 가톨릭성당 성가대나 17~18세기의 이탈리아 오페라에서 많이 쓰였다. 그 후 성당에서는 이와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를 금지시켰으며

오페라에서도 19세기 이후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의 카운터 테너는 카스트라토와는 다르며 가성을 구사하는 남성가수를 가리킨다.

인간에 대한 거세는 고대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등에서 행해졌으며, 성서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에서도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리디아의 왕 아드라민테스는 최초로 여성을 거세하여 하인으로 썼다.

이집트에서는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을 모욕한 자와 파혼자가 거세를 당했다. 파혼자의 거세는 로마와 페르시아에서도 행해졌고 간통범, 강간범, 아동이나 가축을 범한 자 등도 거세의 대상이었다.

스스로 거세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세의 기독교도는 종교적 광신주의에서 정욕을 완전히 절연할 목적으로 자기 거세를 했다. 정욕으로 괴로워하지 않기 위해 자기 거세를 행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더욱 순수하고 진지하게 고뇌하기 위해 자기 거세를 한 경우도 있다.

현대에도 거세에 커다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미국의 여러 주에서 열등 유전자의 불임이 법적으로 인정되며, 유럽에서도 범죄자의 거세가 인위적인 도태의 의미에서 권장되고 있다.

2.1. 프로이트의 거세이론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개념과 함께 정신을 구성하는 세 가지 구조적 요소로 이드(id, 자아), 에고(ego, 현실적 자아), 슈퍼에고(superego, 초자아)를 들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가 발달하는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이런 단계가 이루어지는 가장 큰 힘을 성적욕구인 리비도(Libido)라고 하였다.

1) 제 1단계: 구강기(출생-1년, 1년 반)

구강기는 구순기라고도 하며, 리비도의 모든 작용이 입 주위에서 이루어진다. 실제 이 연령의 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빨고, 배고프면 울고, 좋으면 웃으며 자신의 모든 상태를 입을 통해 표현한다. 프로이트는 이 단계에서 수유경험이 충분하지 않아 리비도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면 과식, 과음, 손가락 빨기 등의 고착적 행동이 유발된다고 말했다.

2) 2단계: 항문기(1년 반-3년)

이 시기에는 배변 훈련이 시작되는 시기로 리비도는 항문 근처로 집중된다. 엄밀한 배변 훈련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고집이 세거나, 어떤 것을 소유하려는 강한 집착을 가질 수 있고, 배변 훈련이 잘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는 방종한 성격이 형성될 수 있다.

3) 3단계: 남근기(3- 5,6세)

성기가 성감대가 되어가는 시기로 아이가 자신의 성기에 관심을 갖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 그 유명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등장한다. 사내아이는 아버지에게

게는 타나토스적인 죽음의 살의를, 어머니에게는 에로스적인 사랑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의 검은 욕망이 발각되어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성기가 잘려질지 모른다는 거세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이 단계를 올바르게 극복하지 못하면, 변태성욕자나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지만 잘 극복하면 자신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초자아(superego)가 발달된다. 여자 아이의 입장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유사한 이성의 부모에 애정을 느끼는 행동을 뜻하는 용어는 엘렉트라 콤플렉스이다.

4) 4단계: 잠재기(초등학교 시기)

성에 대한 관심을 억제하게 되고, 또래 집단과의 사회화 과정이 진행되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 아이들은 학업과 사회화 기술들을 익히게 됨으로서 지적으로 성장한다.

5) 5단계: 생식기(사춘기-)

사춘기가 시작되고, 아이들은 신체 성적인 발달들로 이성에 관심을 갖고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

2.2. 문학과 거세 모티프

거세를 최초로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은 그리스 신화이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티탄 12신을 낳은 후 괴물 키클로페스 3형제와 헤가톤케이레스 3형제를 낳자 남편 우라노스는 괴물 자식들을 가이아의 몸속에 다시 밀어 넣었다. 키클로페스는 눈이 이마에 하나 밖에 없었고 헤가톤케이레스는 머리가 50개 팔이 100개가 달려 하나같이 흉측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고통에 시달리던 가이아는 자식들인 티탄 12신을 불러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소연했다. 모두들 아버지가 무서워 어머니를 외면했지만 막내 크로노스가 어머니를 돕겠다고 나섰다. 이에 가이아는 몸속에 있는 쇠를 버리어 낫을 만든 다음 크로노스에게 주면서 아버지의 남근을 자르라고 일러주었다. 어느 날 밤 크로노스는 어머니를 안고 곤히 잠들어 있는 아버지 우라노스의 남근을 손으로 잡고 잘라 등 뒤로 던져버리고 그의 권력을 차지하였다.

우라노스의 거세처럼 거세가 현대 문학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문학 속 거세의 문제는 오히려 문학비평을 통해 간접적으로 다루어진다. 특히 동화분석에서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엘렉트라콤플렉스가 아니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설명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인 셈이다. 가령 부르노 베텔하임은 『옛이야기의 매력』에서 동화 『신데렐라』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신데렐라』에서는 자매간의 경쟁심리보다는 오이디푸스적인 거부가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딸이 자신에게 성적 욕망을 갖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탈출하는 이야기나, 딸이 아버지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쫓은 이야기, 혹은 남편이 자기보다 딸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딸을 구박하는 이야기 등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이런 분석에서는 거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다. 다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개념 속에 거세 공포증이 있음을 감안하면 거세의 문제가 간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아들과 아버지의 갈등을 다룬 작품들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관점에서 다루면서 거세 모티프를 간접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거세를 다룬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달래내 고개에 얽혀있는 전설이 바로 그것이다. 어느 곳에 의종기로 소문난 남매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누이하고 동생이 고개를 건너는데 소낙비가 세차게 내려 그만 둘 다 온몸이 흠뻑 젖고 말았다. 앞서 가던 누이의 젖은 몸을 보고 뒤에 가던 동생이 갑자기 욕정이 일었다. 동생은 깜짝 놀라 누이에게 자신이 먼저 갈 테니 따라 오라면서 급히 달려갔다. 한참을 달려가던 동생은 누이가 보이지 않게 되자 누이에게 음심을 품은 자신의 페니스를 원망하며 도로 쫓다가 죽고 말았다. 뒤따라온 누이는 죽어있는 동생을 보고 사태를 짐작했다. 누이는 “이 녀석아, 한 번 달래내 보지 그랬냐!”며 땅을 치며 통곡했다. 그래서 그 후부터 그 고개는 달래내 고개라 불렀다.

3. 모티프 유형

거세는 그 성격과 행위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성격에 따라

- 형벌로서의 거세: 야콥 미하엘 라인홀트 렌츠의 『가정교사 Hofmeister』에서 가정교사 로이퍼는 주인집 딸을 임신시킨 뒤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거세한다.
- 종교적 행위로서 거세
- 자기 수양을 위한 거세
- 관직을 얻기 위한 거세

2) 행위자에 따라

- 수동적 거세
- 적극적 거세(자기 거세): 우리나라나 중국의 환관들이 이 경우에 속한다.

4. 서사구조

	내용
원인	욕정
	종교적 수양/철학적 사유와 자기 수양

	아름다운 목소리
	형벌
	관직 획득
	병
	사고
과정	거세(외부의 강압, 수술, 자기거세)
결과	죽음, 자살
	가문의 혈통 단절, 양자로 혈통 계승
	불구자로 살아감/후회, 원망
	관직 획득 후 출세, 성공/ 실패
	욕구불만으로 범죄자로 전락/보복 (살인 등)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로 거듭남/ 새로운 생활 영위
	카스트라토로 명성을 날림

5. 유형 및 서사구조의 예: 『가정교사 Hofmeister』*

작가	야콥 미하엘 라인홀트 렌츠 Jakob Michael Rainhold Lenz (1751-1792)
장르	희곡
생성년도	1776년
등장인물	헤르 폰 베르크: 추밀원 의원 프릿츠 폰 베르크: 의원의 아들 소령: 의원의 동생 구스트헨: 소령의 딸. 사촌오빠 프릿츠와 사랑에 빠진다. 로이퍼: 소령의 아들과 딸을 가르치는 가정교사. 패투스, 볼베르크: 대학생. 프릿츠의 친구. 알베르트: 로테의 약혼자 벤체슬라우스: 학교교사. 쫓기는 로이퍼를 숨겨준다.

* 김미란(역): 군인들/가정교사, 연극과 인간, 2003.

5.1. 내용요약



목사의 아들 로이퍼는 대학을 졸업하고 폰 베르크 소령 집에서 가정교사로 들어가 그의 어린 아들과 딸 구스트헨을 가르친다. 추밀원의원인 소령의 형에게는 아들 프리츠가 있다. 구스트헨과 프리츠는 사촌이지만 서로 깊이 사랑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인 것처럼 상상한다. 어느 날 둘은 프리츠가 대학공부를 위해 고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나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 프리츠는 공부를

끝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구스트헨에게 부탁한다.

프리츠의 아버지는 둘의 심상치 않은 관계를 짐작하고 아들에게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군대에, 조카딸은 수녀원에 보내버리겠다고 위협한다. 프리츠가 떠나자 구스트헨의 어머니는 웨어무트 백작에게 딸을 시집보내려한다. 프리츠와 연락도 두절되고 괴로워하던 구스트헨은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가정교사 로이퍼를 유혹하여 그에게 몸을 허락한다. 하지만 그녀는 후에 임신된 것을 알자 몰래 집을 떠난다. 가정교사 로이퍼도 후환이 두려워 도주하여 선생 벤체슬라우스 집에서 숨어 살며 그의 보조교사로 일한다. 딸이 로이퍼와 함께 가출했다고 생각한 소령은 수소문 끝에 로이퍼를 찾아내서 그를 향해 권총을 쏜다. 천만 다행으로 팔에 가벼운 상처만 입지만 로이퍼는 양심의 가책을 받다가 스스로 거세한다. 로이퍼는 그 일로 자신이 목숨을 잃지 않을까 두려워하지만 선생 벤체슬라우스는 그의 그런 행동을 영웅적인 행동으로 치켜세우며 걱정 말라며 의사를 불러 치료해준다.

그러는 동안 구스트헨은 장님 노파 마르테의 집에서 아기를 출산한다. 자신을 찾아 헤맬 아버지를 생각하며 괴로워하던 그녀는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갈 심산으로 노파 집을 나서지만 기력이 떨어져서 도중에서 길거리에서 쓰러진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그녀는 차마 아버지를 찾아가지 못하고 연못 안으로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한다. 그때 마침 소령이 그것을 보고 달려가 그녀를 구한다. 소령은 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놀라지만 딸을 찾았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한편 대학생 프리츠는 빛 투성이 친구 페투스의 빗보증을 썼다가 대신 감옥에 들어간다. 프리츠는 친구 페투스가 복권에 당첨되자 그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와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는 구스트헨과 결혼하고, 친구 페투스는 사랑하던 음악가 레하르의 딸과 맺어진다. 거세한 로이퍼도 순수한 농부의 딸 리제를 짝으로 얻는다. 그녀는 로이퍼의 거세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남편으로 받아들인다. 구스트헨을 도왔던 장님 노파도 아들에 의해 쫓겨난 페투스의 할머니임이 밝혀진다. 페투스의 아버지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참회한다. 프리츠는 로이퍼와 구스트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아들로 받아들이지만 그에게는 가정교사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5.2. 모티프 유형 및 서사구조

- 유형: 형벌로서의 자기 거세
- 서사구조: 가정교사 로이퍼는 자신이 가르치던 소령의 딸 구스트헨을 임신시키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나머지 스스로 거세한다. 그 후 농부의 딸과 제 2의 인생을 살아간다.

원인	욕정
과정	자기 거세
결과	새로운 생활 영위.

6. 작품 목록

렌츠 Jakob Michael Reinhold Lenz: 『가정교사 Hofmeister』 (1776)

브레히트 Bertolt Brecht: 『가정교사 Der Hofmeister』 (1950)

7. 연계 모티프

근친상간, 갈등, 잃어버린 아들, 사랑, 결혼, 바람둥이

※ <모티프 연계를 통한 스토리생성의 예>

모티프 연계	사냥 + 거세 + 자살
스토리	주인공은 사냥 광이다. 그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사냥을 나간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멧돼지에게 남근을 물려 거세당한다. 절망한 그는 숲에서 목매 자살한다.